

후지코토강과 가스게강

후지코토강과 가스게강은 높은 연도와 투명도로 알려진 시라카미 산지의 원시림을 내려가 후지사토마치에서 합류합니다. 합류한 강은 후지사토마치 남부에서 요네시로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다시 요네시로강은 일본해(한국 동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길이 56.5km 의 후지코토강은 후지사토 고마가타케산(1,158m)에서 발원합니다. 후지사토 고마가타케산은 세계자연유산 시라카미 산지 바로 밖에 위치한 산입니다. 수많은 작은 지류가 다이라 계곡을 지나 후지코토강으로 흘러가 후지사토마치의 평지로 내려갑니다. 산에서 목재를 내려오기 위한 선로가 건설되기 전에는 통나무를 산에서 후지코토강 하류로 흘러보냈습니다.

길이 36km 의 가스게강은 산 정상이 세계자연유산 시라카미 산지의 **완충 지대**에 있는 후타쓰모리산(해발고도 1,086 m)의 산복사면에서 발원합니다. 가스게강은 아키타현에서 유일하게 유역 전체가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강입니다. 가스게강은 예전에는 장애물 없이 마을로 흘러들어 갔지만, 1970 년 스바리 댐이 건설되면서 스바리호가 탄생했습니다. 현재 남동쪽 호숫가에는 캠핑장, 피크닉 구역, 레스토랑이 늘어서 있습니다.

후지코토강과 가스게강은 수질이 뛰어나고 바다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 은어의 서식지로 유명합니다. 은어는 회유어로 가을에는 강을 내려가 바다 근처에서 산란합니다. 부화하면 바다로 이동하고 거기서 몇 달 살다가 봄이 되면 다시 상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댐 건설로 은어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은어가 서식할 수 있는 강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스바리 댐이 건설되면서 가스게강의 은어 서식지는 강 하류로 한정되었지만, 두 강 모두 은어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지코토강과 가스게강은 은어 외에 곤들매기와 산천어도 유명합니다. 가스게강에서의 낚시는 스바리 댐 하류 유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두 강 모두 입어허가가 필요하며, 후지사토 주변의 낚시 가게나 상점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은 ‘계곡 트레킹’ 명소이기도 합니다. 계곡 트레킹은 강바닥을 따라 걸으며 계곡을 횡단하는 액티비티로 날씨가 따뜻한 시기에 진행됩니다. 계곡 트레킹에서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과거 강과 개울을 이용해 시라카미 산지의 숲을 넘던 현지 주민들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